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루미와 던의 유사점 연구: 사랑 모티브에 구현된 일원론*

이 상 엽
(한성대학교 / 강사)

Lee, Sangyeop. A Study of the Similarities between Rumi and Donne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Literature: Non-Duality Embodied in Love Motif.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113-150.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between Jaluddin Muhammad Rumi, a medieval Persian poet, and John Donne, an English leading metaphysical poet in the 17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Goethe's world literature theory. Beyond simple comparisons, this paper is to fi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authors in terms of the literature and culture of the East and the West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lthough times, religions, and languages are different, both authors are trying to break away from the dichotomous thinking as their literary orientation, and this paper tries to reveal how it as a non-duality is embodied in the motif of love in their works. In this process, a theory of Buddhism, namely, Advita (non-duality) is referred to. Many Islamic scholars claim that Sufism, a branch of Islamic mysticism, i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Hinduism and Buddhis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mystical ideas and performing techniques of Sufism. In this respect, it is advisable that Sufism can be seen as a hybrid spirituality. (Hansung University)

Key words: Johann Wolfgang von Goethe, World Literature, Jaluddin Muhammad Rumi, John Donne, Love, Non-Duality

I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인문학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문학 (World Literature)에 대한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애매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작금의 세계문학 논의는 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28595).

자유적 지구화와 인문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함께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세계문학이라는 용어는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비교문학과 함께 미국에서 본격화되었다.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궤를 같이하면서 세계문학은 비서구권 학자들에게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서양 문학과 그 이외의 지역 문학을 동등한 자격으로 대접함으로써 글로벌 문학의 평등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호로 인식되었다. 달리 말해서 최근 세계문학의 등장 배후에는 문학에 끼친 지구화의 영향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민족 중심의 문학을 극복하고 초국가적 문학연구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미 19세기 독일의 대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세계문학 이념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괴테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진한 작가로서 그에게 있어 세계문학은 민족 문학과는 대비되는 일종의 문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세계문학에 관한 성찰은 19세기라는 문맥에서만 유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전 지구적 의사소통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세계문학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론적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괴테의 세계문학 이념의 관점에서 13세기 중세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Jalaluddin Muhammad Rumi, 1207~1273)와 17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과 시인인 던(John Donne, 1573~1632)을 비교 분석하고 유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단순한 비교를 넘어 괴테가 주장하고 있듯 동서양의 문학과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문학의 수평적 보편성을 보이고자 한다. 비록 시대와 종교와 언어는 다르지만 루미와 던 두 작가 모두 공이 이분법적(二分法的) 사고의 탈피를 그들의 문학적 지향점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그들의 작품 속에서 '사랑'(Love)이라는 모티프 속에 어떻게 일원론(non-duality)으로 구현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원론을 논할 때 불교

의 불이(不二)론을 동반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쉘멜(Annemarie Schimmel)을 비롯한 많은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분파인 수피즘(Sufism)은 이슬람의 영향 이외에 시리아의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인 신플라톤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수피즘의 신비주의적 사상과 수행기법 형성과정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Mystical Dimension of Islam* 345). 이러한 점에서 수피즘은 “혼합주의 영성”(이소영 152)이라고 지칭하기도 있는데, 물론 이슬람 신비 사상과 불교는 유신론과 무신론이라는 관점에서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신비주의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문학은 또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상호문화성은 새로운 문화의 이식을 통한 문화적 풍요로움과 새로운 문화적 혼종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 취지는 문화와 문화 사이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호문화성에서 접두사 inter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들의 얽힘과 교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문화 사이의 관계적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와 문화의 만남을 통해 자국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문화가 각기 주체이면서 패권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에 괴테의 지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자를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 그의 고유한 속성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귀결된다. 이는 곧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인 질서 대신에 상호 동등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연대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상호문화성은 만남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이’를 함축하기도 하는데 이 ‘사이’는 만남의 열린 공간으로 작용한다. 상호 문화적 사유가 함축하는 질서는 차이 속에서 존재하는 질서이며, 차이를 통해서 존재하는 질서이고, 차이와 더불어 존재하는 질서로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의 합창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질서라 하겠다.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차이보다는 보편성과

동질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다. 상호문화성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동질성은 그러므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에 더 방점을 두게 된다.

II

프리즘을 통해 색채생성의 원리에 대해 확신하게 된 괴테는 당시의 지배적인 색채이론이었던 뉴턴의 광학을 반박할 수 있다고 직관하고 그의 『색채론』에서 모든 현상을 흑과 백, 어둠과 밝음과 같은 대립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서로 모순되는 양극성을 포용하고 수용하였다(7~8). 그는 문학에서도 매개와 화해의 수단으로서 민족과 민족,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여 이분법적이고 이항 대립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이로써 유럽 문학을 포함하여 동양 문학까지 포괄하는 세계문학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가 말하는 세계문학은 문학을 통한 각 민족 간의 대화를 뜻하는 것이며 문학을 통하여 민족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대립과 차별을 극복하려는 그의 이러한 시선은 타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괴테의 세계문학은 각 지역과 각 민족 문학의 결합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일을 떠맡음으로써 보다 높은 단계의 문화적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괴테는 자신의 비서이자 동료 작가인 에커먼(Johann Peter Eckermann)과의 대화에서 “시란 온 인류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의 시는 국경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계문학의 시대가 눈앞에 온 것”(Eckermann 165)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삶을 영위하고 사랑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 민족의 시인이 다른 민족의 시인처럼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괴테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민족의 시는 세계문학의 근본이 되고 시를 통하여 각 민족은 서로를 알게 되고 시의 차이점을 통하여 각 민족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관용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은행나무 잎은 두 개의 잎으로 갈라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잎이라고 괴테가 그의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루미도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배화교 교인도 아니다.
 나는 동양에 속하지도 않고, 서양에 하지도 않고, 육지에 속하지도 않
 고, 바다에 속하지도 않다.
 -----, 나는 사랑받는 자의 영혼에 속해있다.
 나는 이원론을 버렸다. 나는 이 두 세계가 하나라고 알고 있다.

I am neither Christian, nor Jew, nor Gabr, nor Moslem.
 I am not of the East, nor of the West, nor of the land, nor of
 the sea;
 -----, for I belong to the soul of the
 Beloved.
 I have put duality away, I have seen that the two worlds are
 one, (Clarkson 211)

이 시에서 루미는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는 모든 종교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믿고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를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볼 때, 신은 선술집뿐만 아니라 모스크와 교회, 회당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루미의 보편적 메시지는 모든 세계관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Mannani *Religion & Literature* 165).

괴테에게 이러한 세계문학 개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학 중의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 문학이다. 그중에서도 중세시대의 작가 허페즈(Hafez, Hafis, 1315~1390)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괴테는 허페즈

의 시집, 『디번』(*Der Divan von Mohammed Schemseddin Hafis*)을 읽고 감명을 받아 동서양의 시를 아우르는 『서동시집』(*西東詩集 West-östlicher Divan, West-Eastern Divan*)을 출간하게 된다. 그는 이 시집의 창작원리로서 “유쾌하게 서양과 동양, 과거와 현재, 페르시아와 독일을 서로 연결하고 양쪽의 풍습과 사고방식이 겹치는 것을 찾아보려는 것”(Bhatti 115)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양 극단적인 대립을 “유쾌하게” 연결하는 것은 바로 이질적이고 상호대립적인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동서양 시인 존재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시집을 통하여 민족 문학을 넘어 세계문학이라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었으며 서양 문학이 보여주는 세계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괴테는 자신의 작품에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동서양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물론 괴테가 말년까지 이슬람에 관심을 보이고 또 이슬람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의 철학자이며 문학비평가인 허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의 안내와 지도 덕분이다(Can 280~1). 19세기 영국 극작가 쇼우(G. B. Shaw)는 이슬람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그러한 사랑과 애정의 종교이기에 인간의 미래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괴테는 쇼우에 앞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만약 이슬람이 신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모두 이슬람과 함께 살고 죽는다”(Can 282)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과 이슬람의 예언자에게 너무도 동정적이어서 그런지 운명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자이며 신을 사랑하는 자인 루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서동시집』에서 다음과 같은 루미의 시구를 인용할 정도로 루미의 영향도 받았음을 보인다.

자랄 알-딘 루미는 말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꿈처럼 사라진다,
당신은 이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운명이 그 공간을 정한다;

당신은 더위나 추위도 붙잡아둘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피어난 꽃도 즉시 시들어 버린다.

Jalal al-Din Rumi Speaks

If you linger in the world it fleets like a dream; you travel but
destiny decrees the space; you cannot retain either heat or
cold, and whatever flowers for you withers away at once.

(Ormsby 61)

불교 경전 『열반경』(涅槃經)에 나오는 고사로서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의 군맹무상(群盲撫象)이 수피 문학에서도 발견된다. 루미는 자신의 작품 『마스나위』(Mathnawi)¹에서 이것을 시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수피즘과 불교의 유관성을 유추할 수 있겠다.

몇몇 인도인들이 코끼리를 어두운 집으로 데려가 전시를 했다.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방이 너무 어두워 그들은 아무것도 분명히 볼 수가 없어서 각자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봐야만 했다. 한사람이 손을 코끼리 코에 다 대고서는 이 동물은 “송수관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Some Indians took an elephant into a dark house to exhibit it. People entered the house to try and find out what it was like, but since it was too dark for them to see anything clearly, they each had to feel the elephant with their hands. One person put his

1 이슬람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서정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25,618에 이르는 2행 연구로 총 6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뿐만 아니라 일화와 우화, 이야기와 격언,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수피즘이 전하고자 하는 신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지식, 진리탐구와 우주론과 같은 주제들을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수피즘의 교리와 역사, 전통 등을 망라하고 있다는 면에서 신비주의 경전, 혹은 페르시아의 쿠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의 지혜서로 알려져 있다.

hand on its trunk and said, "This animal is like a water-pipe."

(Harvey 14)

이분법이란 “논리적 구분의 방법으로서 그 범위에 있어서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분지(區分肢)로 나누는”(네이버 국어사전)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그것을 다른 것과 구분해야만 가능하다. 이렇듯 이분법은 어둠과 빛, 선과 악, 흑과 백, 남과 여, 몸과 영혼, 성과 속과 같이 이항 대립적으로 나누어 분별(分別)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주체와 타자를 분별함으로써 실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화하는 추상적 사고에 매몰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서양 사유의 기본구조는 이분법 이어서 서양의 이항대립체계에서는 영혼과 육체와 같이 두 항이 서로 대립하여 한쪽이 우위를 점한다. 한 항은 그 자신의 정의를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자에 대한 의존을 부정함으로써 특권을 갖는 형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양사상은 고대로부터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한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역(周易)과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이라고 하겠다. 주역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여기므로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으나 음과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변화로 보았다. 음과 양이라는 분리된 영역 사이에는 상호 간 중복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역의 논리에는 음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 음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삼라만상은 연기(緣起)하여 일어나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불교의 공사상은 연기즉공(緣起卽空)으로서 연기설과 연관되어 있다. 연기설은 인연생기설(因緣生起說)의 약자로서 이 이론은 이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력한 주장이다. 가령 이분법은 A와 A 아닌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비해 연기설은 A와 A 아닌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연기설은 A와 A 아닌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실재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약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관점인 무명(無明)에 빠지게 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의 공은 바로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며, A가 아니면서 A가 아닌 것도 아닌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은 불이(不二)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공사상은 달리 말하면 탈이분법 사상이요, 불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이론은 상대적 대립을 떠난 것으로서 상대적 관계를 넘어선 절대적 평등사상이다. 불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적 사유의 기본구조는 이항대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이 사상은 이러한 이항대립을 부정하여 이 두 항을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한 항이 다른 항을 억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양의 형이상학, 기독교 사상, 그리고 서양의 근대 철학적 사유의 핵심이 중심과 배제였다면 이와는 반대로 불이 사상은 중심과 배제를 두지 않고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사이의 절대적 평등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와 사고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비적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움, 추와 미, 악과 선, 음과 양과 같은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여 “모든 이원화의 경계를 흔들고 녹여 사라지게 만드는”(한자경 7) 것이다.

하나로 통합됨을 방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언어의 성질과 매우 관련이 있는데, 루미도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반대로 언어 자체가 인간의 사고를 제한한다고 말한다.

갈등과 긴장 대부분은 언어 때문이다.

언어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사랑의 나라에서는, 언어의 자리는 없다. 사랑은 무언이다.

Most of conflicts and tensions are due to language.

Don't pay so much attention to the words.

In love's country, language doesn't have its place. Love's mute.

(Gabriel Iqbal, Rumi Soul Healer 44)

언어 자체가 이분법적인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기에 그것을 사용함으

로써 인간은 이분법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 역시 인간이 어떠한 약속에 따라 만든 것이기에 언어가 생성될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대립구조와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그때 만들어진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분법적인 틀을 가진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분별하는 언어와 사고에서 벗어났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이분법적인 틀에서 해방되어 상반의 개념이 사라진 완전한 조화의 세계인 실재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 세계의 경지인 것이다.

III

비록 시대와 나라는 달랐지만 루미와 던은 모두 공통으로 이분법적 위계질서를 해체하여 탈이분법이라는 일원론을 추구한 작가들이다. 루미와 던은 이렇게 상반된 두 향을 분리하는 추상적인 이분법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전복하고 서로의 긴장 관계가 빚어내는 두 대립 향의 역동성을 역이용하여 이 두 향을 해체하고 하나로 융합했다. 던은 비록 서양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만큼은 루미와 상당한 정도의 친연성을 보인다. 예컨대 루미와 던에게 있어 사랑이 그들 작품의 궁극적인 주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므로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사랑은 곧 신에 대한 사랑이 되고 있다. 그런데 루미의 작품 『마스나위』와 『디번』(Divan)과 던의 작품 『연가』(The Songs and Sonnets)와 『성시』(The Holy Sonnets)에서 보면 이들은 신에 대한 사랑을 연인관계로 보고 남녀의 호색적인(amorous)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루미의 예로틱한 시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신과의 강렬한 신비로운 관계를 명료하게 밝히려는 알레고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존경하오. 술에 취하시오! 여기 와서

내 동반자가 되어주오. 빛나는 추구자여!
알몸으로 와서 나를 안아주오. 입던 옷으로는
황홀로 구원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So, honor me. Get drunk! Come here and be
my companion. Radiant seeker! Come
naked and embrace me. In early clothes
you can't be saved or blessed with ecstasy.

(Nesreen Akhtarkhavari & Anthony A. Lee xiii)

루미와 던은 성스러운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시인이었다. 그러므로 루미는 지상의 세속적인 사랑을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들인 수피교도들을 신에게 연결해주는 가교역할로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루미에게 지상의 사랑과 정신적 사랑 사이에는 본질로 이원적 대립이 없으며,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지상의 사랑은, 그 일시적인 성질을 항상 영두에 둔다면, 정신적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Mannani *Divine Deviants* 10). 그는 목마른 사람만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 바로 『마스나위』와 『디번』의 중심 주제이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 녹아들고
대립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속된 모든 것이 다시 성스럽게 됩니다.

Through your love
Existence and nonexistence merge
All opposite unite,
All that is profane becomes sacred again. (Chopra 19)

루미는 지상의 사랑이 신의 숭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아름다움의 이미지 속에서 신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루미에게도 육체는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의 철학은 지상의 사랑을 통하여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미와 던 이 두 시인은 마치 동양사상을 반영하듯이 육체적 사랑이 결여가 된 소위 정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일방적이며 관념적인 사랑을 타파하고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융합한 완전한 사랑을 추구했다. 루미는 영적 갈망에 대한 은유로서 성욕과 욕망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있는데 던과 같이 성애적인 에로틱한 언어로 영적인 신비로운 여행을 설명함과 함께 사랑 속에서 우상과도 같은 자신의 이기심을 초월하는 자기 소멸(self-annihilation)이라는 ‘파나’(fana) 시도를 예시한다. ‘파나’는 불교에서 공사상에 입각한 무아(無我)를 논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비움의 길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신비적 직관은 이성(理性)의 감옥에 갇힌 자아(ego)를 비우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아의 소멸 상태는 결국 신과 완전한 합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Mannani *Divine Deviants* 146). 이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죽기”(dying before death)로서 모하메드가 한 이 말을 루미는 이기주의의 신비로운 죽음과 변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아에 대한 우상적 숭배와 세속적인 갈망에 대한 집착을 종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Gamard xxiii). 수피즘에 따르면, 자아의 소멸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합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거리”(distance, 145)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클락슨(Petruska Clarkson)에 따르면, 개인을 넘어서는 초 개인적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일종의 친밀함과 함께 동시에 에고를 비우는 특징이 있게 된다(19).

『마스나비』에는 한 쌍의 연인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루미가 신비주의의 중요한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알레고리적인 서술이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서로를 못 본 한 쌍의 연인에게 집중한다. 오랜 기간 헤어진 후에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방문객의 신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여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야만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누가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가에 대한 답으로 남자는 “나야”(It’s me)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여인에게는 이 대답은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동안 그녀와 남자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대답을 듣는 즉시 여인은 남자에게 떠나라고 요청한다. 일 년 뒤에 남자가 다시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더욱 성숙해져서인지 남자는 작년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는 “당신이야.”(It’s you)라고 답하여 드디어 입실을 허용받게 된다.

매나니(Mannijeh Mannani)는 던의 세속적이면서도 성스러운 시의 숨김없는 에로틱한 성격은 루미 시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Divine Deviants* 147). 던은 같은 르네상스 작가로서 페트라르카 풍의 시인들처럼 육체적 사랑이 결여가 된 정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일방적이며 관념적인 사랑을 타파하고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융합했으며 세속적인 사랑은 오히려 숭고한 노래가 되고, 세속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신의 사랑을 간구할 때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한층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보인다. 그는 연애시를 쓸 때 세속적인 사랑의 감정을 종교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와는 반대로 성스러운 시를 쓸 때는 종교적인 감정을 세속적인 사랑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했는데, 가령 성스러워야 할 「성시」 13(“Holy Sonnets XIII”)을 보면, 화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명상할 때 호색적인 구애의 모습과 종교적인 구혼의 모습을 결합한다.

아니오, 아니오; 그러나 나의 이상숭배처럼

나는 내 모든 세속적인 여인들에게 말했다.
아름다움은, 연민의 표시이고, 추함은
오로지 내정함의 표시라고.

No, no; but as in my idolatrie
I said to all my profane mistresses,
Beauty, of pittty, foulness onely is
A signe of rigour: (ll. 9-12)

이렇게 성애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의 유추는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매러티(Arthur F. Marotti)는 이것을 적격을 위반하는 것 (indecorum)으로서 “성애적 영성”(erotic spirituality, 259)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성애적 영성”이야말로 이 두 작가를 관통하는 핵심어라고 할 수도 있다. 요컨대 루미와 던에게 있어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적 사랑도 아니고, 정신적 사랑도 아닌 몸과 영혼이 융합된 영육합일(靈肉合一)의 사랑이라 하겠다. 이것은 지상의 사랑과 천상의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에로티시즘에 대한 묘사 없이는 신에 대한 신비적 체험을 묘사할 길이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 쉴레(Dorothee Sölle)는 “에로티시즘 없이는 신비로운 경험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다”(113)고 말하면서 신비주의는 본질상 에로틱한 것으로 보았다(Bae 40).

IV

이슬람 수피 문학은 혼합주의적 영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철학과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수피즘은 이슬람전통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와 인도 금욕주의 등 외부 사상들이 상당히 수용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세에 들어서

면서 수피 문학은 신과 인간 사이의 신비적 황홀경과 신을 향한 관능적인 표현으로 더욱 화려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중세 시기에 등장한 수피 사사가 가운데 종교적 다원주의를 설파한 대표적 인물은 이븐 알 아라비(Ibn al-'Arabī 1165~1240)와 루미였다.² 이븐 알 아라비는 수피주의 고유의 다원주의적 사상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적 일원론을 철학적으로 정립했고, 루미는 이븐 알 아라비가 정립한 사상을 문학적 형식으로 세련되게 가다듬고 대중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븐 알 아라비는 신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신인 합일의 대담한 시구를 발표함으로써 당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바로 『마스나위』의 저자 루미의 스승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인간의 존재에서 신을 발견하고 신의 존재에서 인간을 발견한다. 루미는 스승의 신인 합일 사상을 그대로 흡수하고 수피 문학의 대표작으로 간주하는 『마스나위』를 창작하기에 이른다. 루미의 작품세계는 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열정, 그리고 신비로운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비유와 대화를 통해 인간의 내적 깨달음을 달성하고 신과 인간의 합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마스나위』는 또한 수피 문학의 정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루미의 경험적 사랑이 주요한 영감으로 작용하는 작품이며, 루미와 수피 탁발승 샴스(Shams of Tabriz, 1185~1248)의 영감과 사랑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루미는 샴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직관적 통찰에 매료되어 이후 영적 연인으로서 샴스와의 진한 우정을 나누며 인간을 통해 신이 현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루미가 『마스나위』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묘사를 통한 사랑의 존재이다. 그는 이 시집에서 신의 존재와 사랑의 존재를 평등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랑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또한, 신이라고 하는 단일적 존재 속에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² 그 이외에 수피 문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는 “나는 실재다”(I am the Real), 즉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신인 합일을 고백한 후 사형을 당한 알 할라즈 등이 있다.

신과 사랑의 단일함은 수피즘의 궁극적 실재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문제로써 루미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하나의 존재로서 파악한다.

루미가 정통 종교 스승에서 벗어나 황홀하게 신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샴스를 우연히 만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우연한 만남과 그 이후의 둘 사이의 장시간 이어진 토론은 루미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샴스로 인해 루미는 신학자에서 신비주의자와 시인으로 변화하게 된다. 신비에 대한 그의 열망은 샴스를 만나서야 비로소 충족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샴스는 루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샴스와 루미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한 일화에 따르면, 루미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샴스가 강의실로 걸어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루미에게 굴욕감을 주었다고 한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말이 그렇게도 없는가? 왜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 창조해낸 새로운 것을 말하라.

Do you have nothing of your own to say, why are you parroting the works of people who are already dead, say something new of your own soul creation. (Iqbal Rumi Soul Healer 43)

루미는 이 말에 매우 충격을 받으면서도 감동되어 샴스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도 열심히 설교하고 열렬히 옹호해오던 기존 종교적 관습들을 멀리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않이 충격을 주었다(Iqbal *The Life and Work of Jalaluddin Rumi* 114). 루미는 영적 스승인 샴스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을 통해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 루미는 타자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자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타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소멸하는 ‘파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련하여 루미는 “모든 우상의 어머니는 너 자신의 예고”(Chittick *Sufism: A Beginner's Guide* 20)라고 말한다. 루미는 또한 “지혜의 덕목을 해치는 것은 이성이다”(Nasr *Sufi Essays* 55)고 말하면서 이성 보다는 지혜에 이르는 길은 신비적인 합일의 직관적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그 신비적 합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움’이라는 자기 소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을 매개로 거듭난 자아는 절대적 실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소멸의 과정을 경험한 후에 자아는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 참 자아로서 신과 타인을 향하여 신과의 합일과 타인과의 합일을 이루는 신비적 통찰이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피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일이라는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면 신과 인간의 분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태양이 떠있는 동안에는 동쪽과 서쪽의 구별이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이명권 299).

『마스나위』에 나타난 사랑은 추상적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며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이다. 루미는 이 작품에서 두 종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완성되어가는 사랑으로서 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사랑인 ‘현실적 사랑’(Ishq Ilahi)과 신 이외의 모든 사랑의 감정인 ‘은유적 사랑’(Ishq Majazi)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현실적 사랑과 은유적 사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은유적 사랑은 육체적 사랑으로서 남녀의 에로스도 이에 속한다. 반면에 현실적 사랑은 신에게 향한 사랑으로서 인간을 통한 신의 현현함은 여기에 속한다. 은유적 사랑은 순간적이라면 현실적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루미는 세속적이며 지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적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은유적 사랑이야말로 신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이해한다. 루미에게 있어 사랑의 생성(becoming)은 존재(being)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으로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는 신성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지니는 생명의 연속성을 신비주의의 가치로 수용한다. 물론 그는 은유적 사랑이 신적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전히 순간적이고 미완성된 사랑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신비주의자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 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수피 문학에서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언어로 묘사할 수 없고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성 안에서의 자아의 소멸을 의미한다.

『마스나위』에서 루미가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지식을 지닌 자로서 이것을 ‘왈리’(wali)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의 친구라는 뜻이다. 신의 친구는 영혼의 불꽃을 지니고 있어 신의 사랑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서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윤리적인 삶에서의 성인(saints)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미는 샴스와의 영적 사랑을 추억하며 그를 신의 친구라고 불렀고 그를 사랑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루미가 언급하는 빛은 단순한 광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신과 인간, 육체와 영혼이 내적 연계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영혼의 섬광과도 같은 것이다. 루미의 사랑에서는 성애적 영성이 가능한 것이며 몸과 영혼의 이분법적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영화 <다이애나>(Diana, 2013)에서 다이애나의 장례식 장면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로도 나오는 짧고 함축적인 루미의 시 한 구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첫 2행밖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여기서는 좀 더 확대해 인용한다.

웁고 그름을 뛰어넘은 어딘가에
정원이 있어요. 난 당신을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영혼이 그 풀밭에 드러누우면
세상은 너무 가득 차서 할 얘기가 없어지고
생각도, 언어도, 심지어는 ‘서로서로’라는 문구도
무의미할 뿐이지요.

Out beyond ideas of rightdoing and wrongdoing
There is a garden. I will meet you there.
When the soul lies down in that grass,
The world is too full to talk about.
Ideas, language, even the phrase “each other”
doesn’t make any sense. (Barks 36)

이분법에 대한 루미의 거부는 그의 저술의 중심 주제이다. 탈이분법을 루미의 철학적 견해로 보는 것이 이슬람 연구와 루미 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둘과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는 하나다”(Vaziri 6)라는 그의 저서에서 되풀이되는 문구는 탈이분법의 개념을 이슬람 세계나 페르시아 문학에다 소개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루미는 서로의 대립 항으로서 선과 악, 신과 사탄, 신자와 불신자, 신과 인간의 의식이라는 종교적인 이분법들을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거부한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물질적 존재인 다양한 현상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식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원칙으로 포함했다(7). 이것은 모든 현상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현상은 반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과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랑의 원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적인 마음속에 있지만, 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정신적인 지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루미에게 있어 사랑은 모든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높은 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V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현상세계를 전체로서 보지 못하고 늘 둘로 “구별하는”(differentiate, Lindtner 271) 성질이 있어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옳

음과 그림과 같이 현상을 양면으로 나누는 분별을 하게 된다. 이처럼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일종의 흑백논리로서 어떤 대상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사고 작용이다. 판단은 다양한 생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생각이란 일상적인 개념들로서 불교에서는 모두 인간이 머릿속에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이것을 희론(戲論)이라고 한다. 언어 구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러한 희론은 모순적이고, 상대적이며, 불합리함을 드러내어 이원론적 분별을 조장하게 된다. 일본의 우에다 요시부미(上田義文)는 희론의 논리가 바로 삼단논법의 논리라고 말하면서 삼단논법적 사유가 실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5). 이러한 분별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그중에 어느 한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변견(邊見)이요 사견(邪見)이며 편견(偏見)을 갖게 한다. 앞서 언급한 군맹무상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그 한 부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한 집착은 나머지를 소외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제2의 불타라고 불리는 용수(Nagarjuna, ca 150~250 CE)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변견을 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파사(破邪)이다. 파사는 언어와 논리를 깨뜨리고 무분별(無分別)의 역설적 지혜에 이르는 방법이다. 동시에 그는 언어와 개념으로 인해 생기는 허망한 말을 희론으로 정의하고 공의 언어로써 희론과 분별로 생기는 사건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정(顯正)이다. 이로써 사건을 파괴해서 정법을 드러내는 파사현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루미는 옳고 그름, 흑과 백, 미와 추, 선과 악, 진실과 거짓과 같은 이분법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은 언제나 직면한 어떤 상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싫어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분류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는데, 인간의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고는 모든 것을 분류하고 분할을 하면서 그것을 무의식으로 따른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정신 분열적 사고는 인간의 내부와 외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인간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수는 희론에서 분별이 생겨나고 분별에서 윤희와 고통의 원인인 업과 번뇌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반대로 희론의 소멸로부터 분별이 소멸하고, 분별이 소멸할 때 업과 번뇌가 소멸이 되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과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사현정이다. 루미는 이러한 개념 너머에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서 갈등과 번뇌가 사라지는 공간이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분별을 넘어서는 곳에는 모두 서로 만나야 하는 정원과 같은 고요한 장소가 놓여 있다고 말한다. 분별과 판단이 없는 바로 그곳에는 절대적인 연결(*connectedness*)이 있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우주는 완전하면서도 고유한 개체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줄로
묶여있다.

The universe is a complete unique entity.
Everything and everyone is bound
together with some invisible strings.

(Iqbal Rumi Soul Healer 45)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 됨을 깨달았을 때는 “서로서로”라는 문구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인간의 사고로는 인간은 타자와 동물과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삼라만상은 사실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분별하는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 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일부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대립을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인식을 향한 발걸음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언어와 사고로 형성되는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던도 그의 작품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문』(*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의 「명상」(“Meditation”) 17에서 타인의 필요성과 신의 존재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간 개인이 인류의 한 부분이기에 개인 하나하나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던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안을 찾으려고 했다.

인간이 홀로 혼자만의 완전한 섬이 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대륙의 일부분이고, 큰 바다의 한 부분이다. 한 줌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간다면 그 대륙은 그만큼 줄어들다. 그것은 육지에서 한 갑이 떨어져 나가거나, 당신 또는 당신 친구의 장원이 떠나려가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만큼 나 자신도 줄어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당에서 조종이 올리더라도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 하지 마라. 그 조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이곳의 전체적인 주제는 모든 인간은 각 개인으로서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지만, 모두가 연대가 되어 있기에 조종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형제애(brotherhood)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모든 개인은 인류 전체 중의 일부이며,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 심지어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클락슨의 표현을 빌리면, “동적인 상호 연관성”(dynamic interrelatedness, 68)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자신을 타자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자의 삶과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다(Stubbs 403)는 의미를 가진 이 부분은 대승불교의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인드라(Indra)망과 같이 지구 전체, 아니 우주 전체가 한 몸이라는 것은 연상하게 한다. 인드라망은 인간은 마치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비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간관계만 아니라 이 세상 삼라만상과 인간과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구슬같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그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결코 그 하나 하나는 다른 것들과 떨어져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그 빛을 주고받으며 켈 레야 켈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던에게도 남녀 사이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탈고프(Ramie Targoff)에 따르면, 던은 몸과 영혼의 이원론자이지만 몸보다 영혼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위계질서를 거부하는 이원론자로서 몸과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한다고 말한다(22). 흔히 남녀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누어 말한다면 육체적인 사랑은 육욕적이고 본능적이어서 방탕하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고, 정신적 사랑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던에게 이 두 가지 사랑은 각기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완전한 남녀의 사랑이 될 수 없고 이 두 가지 사랑이 융합했을 때만이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의 연결과 합일에 대해서는 존슨(Will Johnson)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랑은 단지 고립된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온몸의 일인 것이다(8).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차단하는 육체의 모든 작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끊어낸 사랑의 일부분인 것이다.

물론 던은 초기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페트라르카 풍의 사랑, 즉 정신적 사랑에 반기를 들고 젊은 시절에 방탕한 성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체적 사랑을 그의 시에서 노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내로서 순진한 모어(Anne More)와의 만남 이후로는 던은 정신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녀와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던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살면서도 당시에 유행했던 정신적 사랑에 반발하여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과 육의 합

일이라는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던은 그의 시에서 명확히 완전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으나 그의 작품 「부정적인 사랑」(“Negative Love”)에서 보면 완전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던이 추구하는 사랑은 정신적 사랑의 부정과 육체적 사랑의 부정으로서 영과 육에 대한 두 가지 부정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부정의 방법(via Negativa)인데, 이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양사상에서 부정의 방법을 통해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던에게 있어 완전한 사랑은 정신적 사랑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 사랑만도 아닌 역설적으로 영육이 합일된 사랑이 된다. 그런데 만약 던이 정신과 육체의 합일 문제에서 오히려 사실적인 관계나 혹은 육체적인 관계에 초점을 더 두었던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정신적 사랑이 만들어낸 허상과 맹점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더즈(Wilbur Sanders)는 “가없는 인간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팔고 다니는 정신화의 속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왔다”(30)고 말하면서 던이야말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작가로서 “유쾌한 조롱과 함께 사실적인 여성을 끌어안는 것”(30)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던은 남녀관계에 있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행위와 정신적인 기능이자 영혼의 교감으로서의 합일 중에 딱히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정신만을 높은 가치로 생각했던 16세기 선배작가들의 전통과 인습에 반발하고 이에 대한 혁신을 가하기 위하여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육체적 관계의 양상을 좀 더 파고드는데 전착했다고 하겠다.

VI

루미와 던을 비교한다고 할 때 두 시인 사이에는 문화와 종교, 언어라는 면에서 상당한 간격이 있고 또 각 시인만이 갖는 독특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

하여 두 시인은 작품의 주제라던가 시적 스타일은 너무도 유사하기에 많은 독자는 두 시인에 대해 낮익음을 갖게 된다. 매나니의 지적대로 루미와 던 두 시인에게서 상당한 양의 똑같은 주제와 그 주제를 시로 옮기는 똑같은 방식을 찾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625). 한 가지 예로서 루미와 던은 모두 당대의 시적, 철학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상당한 정도로 전통에 반발함으로써 혁신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루미는 전통적인 이슬람의 신지학적 사변을 배격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에 기인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던이야말로 페트라르카 풍의 기상과 이미지들을 그의 시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그의 사실주의적 성향은 페트라르카의 전통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고 있다. 영국 18세기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은 던 시를 “부조화의 조화”(discordia concors)라고 지칭하고 가장 이질적인 관념을 억지로 결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상반의 합일을 추구했던 던은 우주를 상반된 힘들이 균형을 이루는 세계로 파악하고 이렇게 상반된 두 양상을 즐겨 대립시킨다. 던은 이 양극성을 대립하여 분별하기보다는 이들을 서로 결합하려고 한다. 던은 신의 세계인 천상과 인간의 세계인 지상을 분주히 오고 갔으며 움직임과 부동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은 이러한 질서와 무질서의 세계를 융합한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기꺼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은 소우주인 인간(microcosm)을 둘러싼 모순이고 인간의 모순이란 바로 복잡한 대우주(macrocsm)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우주와 대우주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컸던 던은 아마도 우주적인 천리에 고뇌하며 사랑의 본질을 소우주와 대우주의 우주관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몇 안 되는 작가에 속하게 된다. 요컨대 진정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란 상호 간의 사랑(mutual love)이라고 보았던 던은 루미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사랑은 천상의 사랑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루미는 그의 『마스나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소우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 당신은 대우주입니다.

You may seem to be the microcosm;
In fact, you are the macrocosm. (Harvey 4)

던과 마찬가지로 루미에게도 이 세계는 신적인 본성의 두 측면, 즉 서로 대립하는 두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고 본다. 이같이 “대립자의 상호작용”(interplay of contrasts, Schimmel *I Am Wind You Are Fire* 76) 개념이 바로 루미의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중심적인 사상이다. 루미에게 있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분리를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 아마도 루미와 던은 시인이란 이렇게 상반된 두 관점을 제시하면서 우주를 닮은 지상의 속성을 엿보는 것이며, 이것을 독자가 깨닫도록 이끌어 주는 존재로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 요컨대 이 두 시인의 작품 세계는 상반되는 두 대립 항이 서로 교차하며 불이의 관계로서 둘이 아닌 하나로 공존하는 세계라 하겠다.

루미는 샴스와의 불타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시인이 되었다. 그가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이처럼 불타오름의 경험이 스며들어 있다. 루미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 사랑을 정의한다. 루미는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인 지상의 사랑을 천상에서 하는 사랑의 준비단계로 보았다. 그에게 사랑은 신비주의의 오솔길에서 맞닥뜨린 모든 정거장, 곧 인내와 고행, 외경과 희망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사랑은 모든 생명을 신하로 거느린 솔로몬과 같기 때문이다. 사랑은 만물을 양육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인간을 양육하는 유모이기도 하다. 루미에게는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이따금 루미에게 사랑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석의 힘에 비유가 되기도 한다.

자석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쇠붙이는 어디에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쇠붙이와 자석처럼 영혼의 소멸을 완성한다.

Where would there be iron which is not in love with the magnet? The soul of the poor turns around annihilation like iron and magnet. (Schimmel *The Triumphal Sun* 72)

שמעל의 지적대로 인간을 신에게 가까이 끌어오는 신비로운 힘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상징은 없겠다(72).

던도 그의 성시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는데, 당신의 작품이 쇠퇴해야겠습니까?」(“Thou hast made me, And shall Thy worke decay?”)에서 신과의 합일을 갈망하는 염원을 자석의 이미지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당신께서 자석처럼 저의 쇠 심장을 끌어당겨 주실 것입니다.

And thou like Adamant draw mine iron heart. (l. 14, 293)³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 올리듯 화자의 심장은 불완전하지만, 저항력 있게 구조된 금속의 한 형태인 쇠로 만들어져 있기에 결국에는 신에 의해 끌어당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상(conceit)으로서 장인(匠人)으로서의 신은 인간을 자신과 단절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내재적인 결합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쇠처럼 단단하면서도 또한, 부식할 수 있는 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Kleiman 347). 인간은 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는 신에게 끌어 당겨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은 죄지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쇠 심장은 바로 신의 계획의 일부로서 자신에게 가까이 데려오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³ 본 논문에서 던의 시 원문 인용은 그리어슨(H. J. C. Grierson)이 편집한 *Donne: Poetical Works* (London: Oxford UP, 1979)에 의거한다.

루미에게 사랑은 만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그는 사랑은 플라톤과 갈렌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에게 사랑은 창조의 동기이면서 동시에 목표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태양이 슬픈 그림자를 다채로운 이미지로 변화시켜 세계를 아름답게 하듯이 사랑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변모시키는 위대한 연금술이라고도 한다. 그는 사랑은 금광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저속한 성품은 사랑을 통해 정화되고 교정된다는 것이다. 루미는 금욕을 위한 금욕을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랑의 연금술을 경험하여 부정적인 성품을 도야하라고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대로 하면 돌이 옥으로 바뀌고 악마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천체를 운행하게 할 것이며 마성을 잃고 가브리엘 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악한 충동도 사랑에 사로잡히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사랑을 순경으로도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랑은 순경처럼 옥문을 열고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유로운 천상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사랑의 태양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수백만 개의 티끌을 정돈시켜 우주적인 춤을 추게 하고 이별이 없는 중심의 돌레를 돌며 회전 춤(sema)을 추게 한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분리를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기에 회전 춤은 삶과 죽음, 성장과 쇠퇴와 같은 양극단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상징한다.

합일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이 두 시인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데, 심슨(E. M. Simpson)은 신비주의를 던 사상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그의 사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면 그의 철학은 모두 중세 스콜라 작가들이 물려받은 신플라톤주의 전통에서 성장한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철학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Itrat-Husain 61). 던은 또한 당시 선배작가들의 페트라르카 풍의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페트라르카 풍의 시를 뛰어넘는 초-페트라르카 주의(Supra-Petrarachism)를 모색한다(이상엽 185). 던에게 있어 사랑이란 단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소통이 마련되는 사랑이어야 하기에 그는 상호 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을 구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형제처럼 들판의 넝쿨들이 서로 얽혀서 붙어있듯이 자연이 마련해준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던은 페트라르카 풍 연애시에 반발하고 새로운 시를 모색한 작가로서 16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체적으로 노쇠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애시를 극적(劇的) 기법으로 새롭게 했다. 극적이란 반대되는 것들의 대조와 같등이 융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대조 없이는 진보도 없다”(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55)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두드러진 현상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긴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블레이크의 진술은 인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라만상은 그것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무언가의 존재는 다른 것의 부재로 대개 실현되기 때문에 이원성은 다양한 수준의 인식과 망상에 침투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거의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기에 몸과 영혼, 남성과 여성, 진실과 거짓, 흑과 백과 같이 대립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 항들은 종종 그것들을 각각의 반의어와 비교함으로써 정의된다. 이같이 이 세계의 이원적 대립은 특히 던의 시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는데 그가 이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의 대표적인 시에서 다시 찾아보기로 한다. 던은 누구보다도 형이상학적 기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은 바로 분명하게 공통점이 없는 두 가지를 독특하게 비교함으로써 구현된다. 백커스(T. J. Back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드라이든은 던을 재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재사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 시대의 영롱한 언행 중에서 최고의 유형을 대표했다. 그의 이상

적인 작시법은 항상 멀리 있고 종종 불쾌하고 부적절한 일련의 비유들로 모든 생각을 옷 입음으로써 성취되었다. 그의 작시법은 묘하게 거칠고 운율이 고르지 않다. 그래서 그의 표현의 조잡함은 그의 생각의 독창성과는 불쾌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25).

던의 시는 느닷없이 시작하는 부분과 기묘한 기상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쉘멜에 따르면, “컴퍼스”(compasses) 이미지는 루미도 좋아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로서 이 이미지는 페르시아 서정시의 필사본처럼 보이는 던의 시 「고별사: 슬픔을 금하며」(“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에 잘 드러나 있다(135). 앞서 언급을 한 대로, 루미는 사랑을 은유적 사랑과 현실적 사랑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은유적 사랑은 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둔한 월하의 사랑”(Dull sublunary lovers love)으로서 육체적 사랑이기에 눈과 입술과 손에만 머무는 사랑을 말한다. 이러한 육체적 사랑은 연인들이 헤어졌을 때는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주게 된다. 신비주의 시인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사랑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심장이 영구히 박동하는 영원한 동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남녀가 결합한 후에 그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망일 뿐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던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오직 육체적 사랑만을 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속된 사람들”(layetie)과는 달리 완전한 사랑으로서 이별의 순간에도 이별이 무엇인지 모르리만큼 “순화되고”(refin'd) 이별로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슬프게 우는 여인에게 간청한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랑에 의해서 서로의 마음을 믿고 있기에 육체적으로 이별을 해도 더 이상 개의치 말자고 노래를 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랑에 비유되는 컴퍼스 이미지는 사랑하는 여인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성스러운 순례를 끝마치는 남성 화자를 잘 묘사하고 있다. 엘리엇(T. S. Eliot)이 그의 작품 「사중주」(“Four Quartets”)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내가 시작한 곳에, 나의 끝이 있다.”(In my begging is my end)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는다는 이러한 순례는 수피들의 전통적인 규칙이기도 하다. 그들은 신에게서 나와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으며 모든 것의 좋은 결말은 이미 바로 그 순례의 첫걸음 속에서 예정되어 있다. 영육 합일의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는 이 「고별사: 슬픔을 금하며」에서 남성 화자는 헤어져야 하는 자신과 사랑하는 여인 사이의 감정 차이를 보이기 위하여 던은 수학에서는 사용하는 컴퍼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은 컴퍼스의 고정된 다리가 되는 반면 그는 움직이는 반대편 다리가 된다. 그는 완전한 원을 만들고 돌아오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데 이러한 배회의 의미에는 이미 결합이 배태되어 있어 연인은 돌아다니다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냐면 대립으로 인해 떨어져 있을 때도 그들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한쪽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계속 움직이는 “한 쌍의 컴퍼스” 이미지로 전달되는 이원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적 대립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영혼이 둘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견고한 한 쌍의 컴퍼스의 다리처럼 들어오.
그대의 영혼은 고정된 다리여서, 움직이는 기색도 없지만,
다른 다리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오.
그대의 다리는 중심에 서 있다가도,
다른 다리가 멀리 배회하게 되면,
몸을 기울여, 그쪽으로 귀 기울이고,
다른 다리가 돌아오면, 바로 곧게 선다오.

내가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게 해주오.

If they be two, they are two so
As stiffè twin compasses are two,

Thy soule the **fixt** foot, makes no show
 To **move**, but doth, if the'other doe
 And though it in the center **sit**,
 Yet when the other far doth **rome**,
 It **leanes**, and hearkens after it,
 And growes **erect**, as that comes home.

 And makes me **end**, where I **begunne**. (ll. 25-36, 45)
 (필자 강조)

위의 시에서 이원적으로 대립이 되는 단어들은 “move”와 “fixt,” “sit”과 “rome,” “leanes”과 “erect,” “end”와 “begunne”이다. 「떠오르는 태양」(“The Sunne Rising”)에서도 던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인도 향신료와 비교하고, “그녀는 모든 국가이며 나는 모든 왕자이다”(She‘is all States, and all Princes, I)와 같은 과장법적인 표현을 구사한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향신료에 비유하고 여인의 눈을 태양에 비유하고 사랑을 왕자 국가로 비유하는 것은 던이 역설과 기상에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들은 공통점이 없지만, 시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벽은 무너져 내려 기상 예로의 길을 내주고 있다. 모든 경험을 신비스럽게 결합하려는 그의 비전은 그가 주로 대조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또한, 상호 대립하는 주제들에 그가 매료되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모순과 대립의 성질들은 모든 경험을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신비한 메커니즘을 그에게서 작동시키는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대립하는 것들의 균일성 혹은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조를 구사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랑, 일치, 완전한 원을 상징하는 완벽한 원을 완성하는 컴퍼스의 두 다리처럼, 그의 이러한 이원적 사고는 대립의 도움으로 동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beames”과 “eclipse,” “eyes”와 “blinded,” “to morrow”와 “yesterday,” “honor”와 “mimique,” “center”와 “spheare”과 같은 단어들에

서 대답하는 두 항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종교적인 내포를 가진 제목에 있지만 「시성화」(“The Canonization”)와 같은 시에서의 주된 기상은 완전한 사랑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연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다섯 개의 모든 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다.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사랑의 완성으로 성인이 되듯이 던은 남녀 간에 완전한 사랑이 달성되었을 때에도 역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기발한 착상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그는 불사조의 수수께끼라는 기상을 사용하면서 유골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사랑하는 연인도 시간과 죽음의 장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나”(I)와 “당신”(Thou)이 하나의 공통된 실체로 합쳐짐으로써 진정한 연인들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에 모든 이원적인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불사조의 수수께끼는 더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둘은 하나여서 그렇게 되었다.

The Phoenix riddle hath more wit
By us, we two being one, are it. (ll. 23-4, 14)

“둘”에서 “하나”로의 이행은 던이 기상과 대조를 통해 강조하는 균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이 시에서 이항대립은 “wealth”와 “Arts,” “real”과 “stamped,” “flye”와 “Tapers,” “Eagle”과 “Dove,” “dye”와 “live,” “peace”와 “rage,” “two”와 “one”과 같은 단어들에서 나타난다.

VII

지금까지 괴테의 세계문학 이념의 관점에서 13세기 수피 신비주의자이면서 시인인 루미와 17세기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대표적인 형이상학 파 시인인 던을 비교 분석하고 유사점을 찾아보았다. 괴테의 세계문학 이념

은 그 근본 취지가 문화와 문학 사이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의 세계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을 영위하고 사랑하는 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간과 장소의 간격을 뛰어넘어 던과 같은 한 국가의 시인이 루미와 같은 다른 국가의 시인처럼 얼마든지 유사한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곧 문학을 통해 각 민족의 문학과 문학 사이의 대화를 뜻하는 것이며 차이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문학을 통하여 민족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괴테는 민족과 민족,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유럽 문학을 포함해 동양 문학까지 포괄하는 세계문화 개념을 만들기 위해 문학을 매개와 화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는 문학을 통해 민족과 민족,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여 이분법적이고 이항 대립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이로써 유럽 문학을 포함하여 동양 문학까지 포괄하는 세계문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문학을 통해 민족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려고 했으며 극단적인 대립과 차별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본 논문은 괴테가 주장하듯 동서양의 문학과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며 문학의 수평적 보편성을 보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시대와 종교와 언어는 다르지만 루미와 던 두 작가가 모두 공히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를 그들의 문학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은 이것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사랑이라는 모티프 속에 어떻게 일원론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그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루미와 던을 비교하면서 탈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독특한 감정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두 시인 모두 사랑을 인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사랑은 이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멸을 통하여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분별이 사라진 완전하고 신비로운 조화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다. 두 시인은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완전한 결합을 만들어 내고 시간과 장소

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육체와 영혼을 통합하고 둘 사이의 조화로운 통합에서만 사랑은 완전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시인은 마치 이와 같은 일원론을 논할 때 이항대립을 부정하고 절대적 평등사상을 구현하는 불교의 불이론을 반영하듯이 육체적 사랑이 결여가 된 소위 정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일방적이며 관념적인 사랑을 타파하고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을 융합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인용 문헌

- Abrams, M. H.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Sixth Edition. Volume 2.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3.
- Backus, T. J. *John Donne: The Critical Heritage*. Vol. II. ed. A. J. Smi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Bae, Hyunju. "The Moments of Divine Eros in Luke 7:36-50: In Search of a Usable Past from a Korean Feminist Perspective." *Religion, Ecology & Gender East-West Perspectives*. Eds. Sigurd Bergmann & Yong-Bock Kim. Studies in Religion and the Environment, Vol. 1. Berlin: Lit Verlag, (2009): 35-54.
- Barks, Coleman. trans. *The Essential Rumi*. New Expanded Edition. HarperOne, 1995.
- Bhatti, Anil. "Der Orient als Experimentierfeld. Goethes *Divan* und der Aneignungsprozess kolonialen Wissens." *Goethe-Jahrbuch 2009*. Göttingen. (2009): 115-28. *From Popular Goethe to Global Pop: The Idea of the West Between Memory and (Dis) Empowerment*. With a Foreword by Aleida Assmann. Ed. Ines Detmers and Birte Heidemann. Rodopi, 2013.
- Can, Selfix. *Fundamentals of Rumi's Thought*. New Jersey: Tughra, 2008.
- Chittick, William C. *Sufism: A Beginner's Guide*. Oneworld Publications, 2007.
- Chopra, Deepak. *The Love Poems of Rumi*. Ebury Digital, 2008.
- Clarkson, Petruska. *The Transperson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The Hidden Curriculum of Spirituality*. London and Philadelphia: Whurr Publishers Ltd, 2002.

- Eckermann, Johann Peter. *Conversations with Goethe (Everyman's Library)*. London: Dent, 1971.
- Gamard, Ibrahim. Trans. *Rumi and Islam: Selections from His Stories, Poems, and Discourses—Annotated & Explained*. SkyLight Paths, 2004.
- Goethe, Johann Wolfgang von. *West-Eastern Divan: Complete, Annotated New Translation, Including Goethe's "Notes and Essays" & the Unpublished Poems*. trans. Eric Ormsby. Gingko Library, 2019.
- Grierson, H. J. C. *Donne: Poetical Works*. London: Oxford UP, 1979.
- Itrat-Husain, M. A. *The Mystical Element in the Metaphysical Poets of the Seventeenth Century*. Edinburgh: Oliver and Boyd, 1948.
- Lewis, Franklin D. *Rumi: Past and Present, East West: The Life, Teachings and Poetry of Jalal al-Din Rumi*, Oxford: One World, 2005.
- Han, Jakyung. *No-Self Theory of Buddhism*.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6.
[한자경. 『불교의 무아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 Harvy, Andrew. re-created and edited. *Teachings of Rumi*. Boston & London: Shambhala, 1999.
- Iqbal, Gabriel. *Rumi Soul Healer A Transcendental Story of Ecstatic Passion and Mystical Love*. Second Edition. Eureka Academy, 2015.
- Iqbal, Afzal. *The Life and Work of Jalaluddin Rumi*.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Johnson, Will. *Rumi's Four Essential Practices: Ecstatic Body, Awakened Soul*. Inner Traditions, 2010.
- Kleiman, Ed. "Adamant in Grace: The Subtlety of Donne's Most Subtle Craftsman." *English Studies* 77.4 (1996): 343-50.
- Lee, Myung Kwon. *Muhammad, Jesus, and Islam*. Seoul: Conatus, 2008.
[이명권.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서울: 코나투스, 2008.]
- Lee, Sangyeop. "Ronsard and Donne's View of Love: Desire for De-centric Unit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4 (2019): 167-208.
[이상엽. 「롱사르와 던의 사랑에 대한 시각: 탈이분법적 통합에 대한 욕망」. 『신영어영문학』 74 (2019): 167-208]
- Mannani, Maniieh. "The Sacred and Erotic Poetry of Jalal al-Din Rumi and John Donne: A Comparison."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 27.4 (2000): 625-44.

- _____. *Divine Deviants: The Dialectics of Devotion in the Poetry of Donne and Rumi*, 2007.
- _____. "The Metaphysics of the Heart in the Sufi Poetry of Rumi." *Religion & Literature* 42.3 (autumn 2010): 161-68.
- Marotti, Arthur F. *John Donne Coterie Poet*.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6.
- Rumi, Jaluddin Muhammad. *Love Is My Savior: The Arabic Poems of Rumi*. Trans & ed. Nesreen Akhtarkhavari & Anthony A. Lee.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6.
- Nasr, Seyyed Hossein. *Sufi Essays*. Chicago: AC International Group, Inc., 1999.
- Sanders, Wilbur. *John Donne's Poetry*. Cambridge: Cambridge UP, 1971.
- Schimmel, Annemarie. *The Triumphal Sun: A Study of the Works of Jalaloddiin Rumi*. Persian Studies Series 8.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_____. *I Am Wind You Are Fire: The Life and Work of Rumi*. Boston & London: Shambhala, 1996.
- So, Youn Jung. "A Study on Spirituality of Turkey Sufism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ocusing on the Spirituality of "Mevlana" Seeking Unification with Allah." *Bible and Theology* 58.0 (2011): 129-56.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소윤정.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터키 수피즘의 영성에 관한 연구: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메블라나" 영성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8.0 (2011): 129-56. 한국복음주의신학회.]
- Sölle, Dorothee. *The Silent Cry: Mysticism and Resistance*. Trans. Barbara Rumscheidt & Martin Rumscheidt. Fortress Press, 2001.
- Stubbs, John. *John Donne: The Reformed Soul*. New York: W. W. Norton & Co., 2007.
- Targoff, Ramie. *John Donne, Body and Soul*.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Vaziri, Mostafa. *Rumi and Shams' Silent Rebellion: Parallels with Vedanta, Buddhism, and Shaivism*. Palgrave Macmillan, 2015.
- Yoshifumi, Ueda. *The Thought of Mahayana Buddhism*. Trans. Park Tae Won. Seoul: Minjogsa, 1989.
[우에다 요시부미. 『대승불교의 사상』. 박태원 역. 서울: 민족사, 1989.]

150 이 상 엽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cd90f1f14684c1ca4c4e711e91eb5a3>>

metod22@nate.com

논문접수일: 2020. 8. 24 / 수정완료일: 2020. 11. 21 / 게재확정일: 2020. 11. 25